

연중 제17주일

기도서 399 면 (C해)

제1독서 : 창 세 18, 20-22
 제2독서 : 골 로 2, 12-14
 복 음 : 루 가 11, 1-13

숲 정 이

발행처 천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아 버 지

김 영 신 신부



예수님의 오늘 복음 말씀(루가 11, 1-13)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를 축복하시어 하느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자 하는 굳은 의지이며, 가르침임을 우리는 명심하자. 루가 복음사가가 마태오 복음사가와는 좀 다른 뜻으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깊이 의식하고 2백주년을 맞이하는 이 땅에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이룩해야겠다.

루가 복음사가는 하느님 나라에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상양식과 죄를 용서받는 모든 것까지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살라고 간단히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영의 은총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신 기도임을 확실히 전해주고 있다. 또한 기도는 어느 한 순간에만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계속하므로써 성부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이 들어 있는 우리의 빚문서를 무효화 하시고(골로 2, 14)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에까지 깊숙하게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아브라함은 제1독서 창세기(18, 20~32)에서와 같이 몇 만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조건을 붙이고 하느님께 애원했으나 자신이 의인 50명을 찾기는 커녕 5번씩 번덕을 떨고도 결국 의인 10명도 못찾고 좌절해버리므로 구하러던 도시를 멸망시키고 만다. 이와 같이 우리도 흔히 기도하므로 하느님이 아니라 자신이 파멸시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다. 또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이들을 용서하고 자기 잘못도 용서 청할 때 어떤 조건을 붙이면 완전한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고, 우리는 용서가 점점 매달라가므로 행동이 경직화되는 현사회에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복된 삶을 살아야겠다.

루가 복음사가를 통하여 기도하는 법을 배운 예수님 제자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께 청원하여 정의와 진리, 사랑에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현사회에 빵을 얻어줘야 한다. 오로지 우리가 '간청'함으로써 성령의 도움으로 부족함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되고 빵을 얻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도 이스라엘에서와 같이 귀한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하는 인정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나 인간은 인정을 거절할 수 있고 청과는 달리 엉뚱한 것을 줄 때도 있으며 귀찮게 출라내야만 겨우 얻는 인간사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이나 인간 사회처럼 거절하거나 애타게 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구체적인 행동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루가 11, 2)이다. '아버지'께 간절한 원의를 청하는 자녀가 되자. (창인동 주임신부)



불과 개미들

솔제니첸의 소품 가운데 「불과 개미들」이라는 글이 있다. 그 내용인즉 이렇다.

— 다 썩은 나무 한 토막을 불에 던진 일이 있었다. 그 안에 개미가 가득 살고 있는 줄은 몰랐다. 나무가 딱딱 소리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하자 개미들은 메를 지어 쏘아져 나와 어쩔 바를 모르며 이리저리 헤맸다. 나무를 따라 기어다니다가 불에 타면 꼬부라지곤 했다. 나는 곧 그 나무를 던져내서 불 걸로 굴렸다. 이제 많은 개미들이 살게 되었다. 개미들은 모래 위로 해서 솔잎을 넘어 기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개미들은 불에서도 망치질을 앉았다. /방금 봉변을 당했는데도 되돌아 왔다.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들을 버림받은 집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그 중에 많은 개미들은 도로 타는 나무에 기어올라가 갈팡질팡하다가 죽어 버렸다. —

이 작품을 알아듣는 느낌은 읽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다. 그 중에 어느 한 느낌은 <버림받은 집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힘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보자면, 동자나 집에서 멀리 다른 곳으로 갔다가도 이내 되돌아 오는 귀소(歸巢) 본능을 뜻한다고도 하겠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인간세계에 옮겨보면 생각할만한 많은 것을 던져준다. 어머니의 품, 제 본향(本鄕)을 찾는 모습이다. 신앙인의 자세에서 보면,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나라를 찾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찢겨진 인간의 모습을 본래의 그것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다.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일이 하느님 나라의 완성이니 까. 지금 우리 교회가 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발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숲 정 이 산책



서울, 광주, 전주에서도 많이 참여했다

□ 주교단에 보내는 공개

호 소 문

지극히 존경하옵는 주교님.

1. 불행하게도 J.O.C 회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거둬들여 부당 해고되어 온 근로자 6명이 지난 7월 6일부터 단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를 모든 이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간절한 호소에 더이상 외면할 수도 없었으며, 이들의 신음소리에서 우리 노동사회의 윤리적 타락과 불의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최근 우리나라는 점차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도시 근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은 경제성장의 미명아래 누구보다도 가혹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자들은 정부의 걸치레적인 경제정책과 인정머리 없는 사용자들의 탐바구니에서 기계의 부품처럼 되어 가고 있으며, 탐욕스럽고 무절제한 산업 경쟁 속에서 자신의 인권을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권익을 옹호할 수 없는 무방비 속에서 노예와 비슷한 굴종만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3. 이런 비참한 노동 현실 속에서도 다행히 주교님들께서는 J.O.C 활동과 갖가지 노동자 사무를 통해서 저들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고 복음의 정신으로 노동의 존엄성과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정말 자애롭고 어머니다운 교회의 배려가 아닐 수 없으며, 특히 노동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사목자들에게 감사할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많은 노동자들을 돌볼 수 있는 사목자의 수는 너무나 적어 목자없이 방황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을 지도하는 확실한 방향도 서있지 못한 느낌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실상 가상으로 정부의 변형된 정책은 그동안 매스컴을 동원하여 J.O.C를 '좌경단체' '불순세력'으로 매도해 왔으며, 갖가지 압력으로 탄압을 가해왔습니다.

이에 비신자는 물론 많은 신자들까지도 J.O.C에 대

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점도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J.O.C 회원들은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외로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5. 한국 선교 200주년을 맞이하여 주교님들께서는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 빛을" 심어주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뜻 있는 목표이며, 이에 저희도 정성을 다해 동참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는 당연히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소외당한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명하고 확실한 복음의 정신을 제시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때, 우리가 선정하고 있는 200주년의 목표가 비로소 참 뜻을 지니리라 믿는 바입니다.

6. 이에 오늘날 그 누구 못지 않게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드리면서, 주교님들께서 깊이 통찰해 주실 것을 함께 호소합니다.

- 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집소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 나)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누구의 조정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촉구해 주십시오.
- 다) 노동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사목방침을 설정하여 저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 라) J.O.C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홍보활동과 함께 J.O.C 탄압을 중지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7. 전주교구님들이 주교님께 이러한 호소를 드리게 된 발단은 소위 "태창사건" 이후의 거둬들이는 부당해고 때 문입니다. 이 경위는 동봉하는 유인물로 말씀드립니다.

1983년 7월 13일

전주교 전주교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일동 드림

권 력 과 서 민

김 병 환 신부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품으로 감잡한 바다의 침묵 속에서 묵묵히 사흘을 견디는 노인의 투지가 선명하게 부각되는 작품이다.

노인은 병든 몸을 이끌고 마지막으로 생애 도전하듯이 바다로 나간다. 사흘간의 악전고투 끝에 실로 오랫동안 커다란 참치를 한마리 잡게 된다. 노인은 만족을 느끼며 힘차게 바다를 저어가는데 참치가 울린 피의 냄새를 맡은 상어 떼가 나타난다. 노인은 필사적으로 상어 떼와 싸웠지만 결국 상어 떼에게 참치를 다 뜯겨 앙상한 가시만 남는다. 노인은 굶주림과 허기짐에서 오는 극도의 피로와 허탈감에 빠져 죽음이 엄습해옴을 느낀다. 이 작품이 웬지 모르게 오늘의 우리에게 더욱 실감을 느끼게 한다.

얼마 전 막강한 권력을 가진 행정부 요인이 전주에 왔었다. 실정으로 보면 하루같이 권력들이 아닌가? 예우인지, 아첨인지 한때 팔달로 교통이 마비되고 관계기관 직원이 총 동원되어 경비를 서느라고 법석을 떨었고 밤늦게까지 접대하느라 분주했다니 권력의 힘은 인간을 현혹하는 큰 유혹이다. 권력있는 이들에게 쓰여지는 돈들, 그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소요 경비들이 하루에 얼마나 될까? 우리 서민들 생활을 보면 열심히 일하고 허리

띠를 졸라매며 절약하는데도 항상 궁핍하기만 하다.

일년 전 J.O.C 회원들이 가톨릭 노동 청년 활동을 한다고 권력의 압력에 의해 공장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명단을 각 공장에 돌려 끝내 발출을 끊어 놓았다. 10여 만원 남짓의 임금으로 6명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 구실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생계수단을 권력의 힘으로 막고 있으니 이 비참한 우리의 현실 앞에 바위에 짓눌린 듯한 답답함을 느낀다. 또 얼마 전엔 원평에서 평생 농사만 짓던 아버님이 오셨다. 는 가운데 작년부터 제지공장이 들어섰는데 농작물의 피해가 1백여만원이나 된다고 하셨다. 공장 사장이라는 사람이 먼서기를 하던 사람이라 도의심이나 기업윤리를 무시할 뿐 아니라 서울에 권력들이 있다고 안하무인격이다. 농민은 힘이 없어 말도 못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외면하니 고스란히 당하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다. 아들이라고 찾아 오셨는데 성경이나 읽고, 기도나 드리는 신부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이러한 서민들의 서글픔이 어찌 이것 뿐이겠는가 권력은 더 높은 권력에 신경써야 하는 악순환의 현실이기에 더욱 가슴 아픈 일이다.

일생을 어업에 종사하며 바다에서 생계를 열고 바다와 싸우던 노인의 마지막 고기잡이, 필생의 힘을 다하여 바다와 상어에 도전하던 그 노인에게서 오늘의 험난한 세태를 살아갈 인쇄와 투지를 배움으로 위로를 삼는다. (서학동 주임신부)

□ 200주년에 방문하실

교황님은 누구인가?

교황은 로마교구의 주교이며, 베드로 사도의 수위권의 계승자이며, 지상의 그리스도 대리자이다. 그리스도께서 어린양들을 돌보라고 베드로에게 맡기셨으므로 교황은 하느님이 지정해 주신대로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최고의 봉사 책임을 가지고 영혼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교황은 모든 신도들의 목자로서 온 교회와 각 교회의 성의를 도모할 사명을 받은 것이므로 교황은 모든 교회에 대하여 지상에서 최고권을 지니고 있다.

로마 주교의 특별한 임무는 바로 베드로 사도의 그것, 즉 교회내의 일치의 원리가 되어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교회의 일치를 보존하는 일이다. 이 목적 때문에 로마 주교는 주교단의 권위있는 으뜸이다. 그는 주교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교들 중의 첫째이다. 또한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 현재 주교들은 최종적으로 교황이 임명한다. 교황은 교구의 일에 개입할 수 있고, 또 주교가 직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 이름으로 임시 교구장을 지명할 수도 있다.

교황의 중앙집권적 통치는 시대가 흐르면서 발전해 왔으며 현재에는 교황의 통치를 돕는 여러 성성(聖省)들이 있고, 이들 기관이 모여 교황청을 이루고 있다. 마치 한 국가 안에 여러 행정부서가 있는 것과 같다. 교황의 협조자들로서 추기경들이 있다. 원래 이들은 로마와 그 주변에 있는 저명한 교회들의 주교와 사제와 부제들이었다. 그러나 점차로 추기경단의 구성은 국제화하여, 지금은 많은 중요한 교구의 주교들이 이에 속해 있다. 여러 성성의 장관으로서 로마에서 일하고 있는 추기경들도 많다. 11세기 이후 교황 선거는 추기경들이 해오고 있다.

교황의 일치시키는 직능에는 교사로서의 중요한 임무가 따른다. 무류적인 주교단의 으뜸으로서 교황은 특별한 모양으로 무류성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교회의 햇불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동떨어진 신조를 선포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온 세계가 믿고 있는 바를 선언할 수 있을 따름이다. 교황이 무류권을 갖는 것은 그 내용이 도덕과 신앙에 관한 교리 결정에 있으므로 교황이 모든 신앙인들의 교사로서 교리 결정의 최고 권위에 의해 말할 때이다.

교황의 신앙을 두고 말한다면 그는 교황으로서 한 신자이다. 그는 자기가 것처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데에서 자기의 신앙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교도적의 지도와 선언은 절대적인 무류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 것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하느님의 영이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높은 권위를 가지고 극진한 존경을 요구하는 말씀들이다.

교황님은 왜 오시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한국 방문이 내년 5월로 예정되어 있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교황님이 이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2세기, 그것은 고난과 시련으로 이어진 한마디로 순교의 역사였다. 따라서 200주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때인가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 200주년 기념 슬로건 -이 땅에 빛을-이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다. 「이 땅에 빛」그것이야말로 300년대를 향하는 한국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한다.

사회 전체에 빛과 희망을 주는 교회로써 교회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자신을 열고 비우는 마음, 곧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2백살이 되는 우리 교회의 참 모습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녔는가, 그리스도화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베드로의 후계자로 불림 받은 그분이 이 땅을 방문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 모든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고통까지 함께 나누고자 오시는 그분은 특별히 부녀평침목의 교회,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참 평화, 희망을 주실 것이다.

취임 이후 양떼를 찾아야 하는 목자의 직분을 거듭 강조한 교황성하는 주위의 열려를 뒤로한 채 당신을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시고자 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 왔다. 방문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갖가지 위협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교황성하는 실제로 피격을 당하는 극한의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시정시복에의 염원을 비롯, 2백주년의 모든 행사가 우리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것, 우리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뜨겁게 일고 있는 교황성하에 대한 관심은 2백주년을 맞는 한국 교회로서는 당연한 현상이고, 한국 교회가 교황성하를 모신다면 더할 나위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지만 교황성하의 방한이 2백주년 행사의 전부인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 교황성하께서 오시는 것은 2백주년을 맞는 한국 교회를 방문하시기 위한 것이지만 한국 교회가 교황성하를 위해 2백주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땅에 빛」으로써의 교회의 모습과 역할을 되찾아야 할 2백주년이 교황성하의 방한 열기에 가려져서는 안된다.

조국 폴란드의 아픔을 통해 한국의 고통을 익히 알고 계시는 교황성하는 하느님께서 한국 방문의 은혜를 주시도록 매일 기도하신다.

까따파마 지하 묘지에서 기어나온 맨손의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던 폭군 네로의 로마제국을 뒤집어 엎었다. 이 맨손의 사람들의 대표인 교황님을 맞으면서 우리도 맨손으로나마 기적적으로 역사 안에 평화를 부활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어야겠다.

여성의美는 미용에서!
7월 26일 드디어 개강
학원생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 T. R로 산 교육화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 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김 테레사(금순)
☎ ④ 9206 · ③ 5289

유치원 교재 교구전문

중앙 교육사

전화 (72) 8818번

이 승 호(다마스)

[SS] FASHION 전주 특약점

버 킹 검 위 크 엔 드
로가디스 소사이머티 간 이 북

런 던 포 그 30% 세일
세계적인코트의명문 7월 22일~31일까지

챌 린 저 주 니 아 북
신화미국 옆 ④ 4451
주인 율리이나

□ 200주년 기념

□ 기도회 목상

전주교구 '83 신앙대회

순교자들의 순교정신

우리 교구는 20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83년 전주교구 신앙대회를 9월 25일(일) 전주 실내 체육관에서 실시한다. 금년도에 실시되는 신앙대회는 교황대사님을 모시고, 교구의 순교자들을 주부로 모시는 행사이며,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일치를 내용으로 기도와 말씀을 들으며 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신앙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7개부서(총무, 진행 및 전례, 동원 안내, 섭외, 봉사, 홍보, 시설)를 두고, 10회의 준비회의와 부서별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사항이 점검되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는 교구의 7만 신자가 기도하고 적극 참여했을 때 더욱 의미있는 행사가 된다.

우리는 200주년을 맞이하여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한 순교선열들의 모험을 배워 후손들에게 보다 성숙되고 좋은 씨앗이 되어 미래에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기도하며 참여해야 한다.

□ 한국교회에 성년 1년 연장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의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 천주교회 2백주년인 1984년 1년 동안 한국 신자들이 보다 더 성년의 은총을 풍성히 입을 수 있도록 한국 교회에 「구원의 성년」 기간을 특별히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구원의 성년」은 전세계적으로 지난 3월 25일 시작 84년 4월 22일 부활주일에 일제히 끝나게 되어 있으나 교황의 이번 특별조처로 한국교회의 「구원의 성년」 기간은 84년 교회 전례력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왕 축일(84년 11월 25일)까지 연장된다.

□ 200주년 홍보용 카세트

“이 땅에 빛을”

2백주년 이 이제 바로 눈앞으로 다가서고 있다. 2백살의 나이를 먹는 한국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2백주년을 알고 있으며 그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가? 서울대교구 홍보국에서 제작된 2백주년 카세트 테이프는 2백주년의 모든 것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60분짜리인 이 테이프는 2백주년 기도문으로 시작, 2백주년의 슬로건 「이 땅에 빛을」에 대한 해설, 초기 한국 교회사, 오늘의 교세, 순교복자에 대한 추모의 글,

한국교회의 수난사 중, 수많은 순교자들의 전기들 속에 나타난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순교자들이 전생애를 통하여 순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연약한 육체와 마음을 가다듬고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준비와 함께 날마다 순교할 각오로 전생애를 살았던 것이다.

또한 우리 순교자들은 단 한 번의 성사를 받기 위해 평생동안 선교사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했으며, 한 번의 미사를 위해 수백리를 걸어서 한밤중에 비밀리에 미사참례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박해시에는 산골짜기마다 많은 교우촌을 형성하고, 같은 기도, 같은 생업을 하면서 서로 협력해 주는 공동체로써 대단히 화목하게 잘 살았음을 볼 수 있다. 이런 교우촌은 초대교회의 공동체와 흡사하였고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애덕과 위로는 물론이요 특히 이웃사랑의 실천은 주위의 외교인들을 감동케 하여 그들을 입교하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박해가 크면 클수록 신자들의 수가 증가하였던 놀라운 사실을 한국 교회사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그들은 순교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순교할 간절한 원의 때문에 자진해서 제포되었으며 모진 고문에도 한마디의 배교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순교정신은 비합법적인 관장의 난폭한 폭력 앞에서 무저항과 양순과 애덕과 더 높은 자유의 정신적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즉 그들의 새로운 삶인 천국 복락에 대한 갈망이나 굳센 신앙정신은 결국 연약한 육체의 한계성까지도 넘어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결국 더욱 더 강한 정신적 승리를 맛보게 되었던 것이다.

김대건 신부의 유증서간, 시성시복 운동을 비롯, 2백주년의 의의와 목적(2백주년 정신운동), 2백주년 기념행사, 2백주년 사목회의, 2백주년 기념사업 등 2백주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각종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카세트 테이프는 본당 및 공소, 단체,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이다.

※ 구입처-성바오로 서원

□ 200주년 특별헌금 주일(오늘)

2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하여 특별헌금을 오늘 실시합니다. 200주년 사업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교우 여러분의 정성어린 봉헌을 바랍니다.

청 자 당 제 과 점
서 을 분 식

각종 빵과 결혼·생일·선물용 케익 전문

☎ ② 0 9 1 0

군산시 중앙로 1가 68(우체국 옆)

김 보나벤틀라(영수) 이 스틸라(규자)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씨시스템의
협상 인화기 신설

미영칼라현상소

☎ ②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마춤·대여

제덕드레스·약혼복·연주복·부케·신부화장·비디오 촬영

신 부 의 집

동서편통로 서울신탁은행 앞

전화 ② 6951

정 인 기(논지노)

□ 교구사 ⑤



박 해 기(迫害期)

신유박해(1)

조선 천주교회가 자국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수용되고 창설되었듯이 전교와 발전의 사명 역시 평신도들에게 맡겨져 있었다. 그래서 비롯된 사건이 소위 가성직제도 또는 가성사집행제도이다.

그것은 구원의 은총을 전달하는 수단인 성사의 은혜에 대한 열망과 교리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한 시대에서 빚어진 것이다. 이 사건이 교리상 무서운 독성죄가 된다는 사실은 1789년 전주의 유 향검이 교리서를 깊이 정독하던중 비로소 발견하였다. 조선교회는 이러한 근본 원인이 성직자가 없는 현실에서 발생됨을 통렬히 느끼자 성직자의 영입은 조선교회의 사활이 달린 일로 여겼다.

이것은 1794년 12월 2일 중국인 주 문모신부의 입신(入鮮)으로 꿈을 이루었다. 1795년 봄, 유 향검은 주신부가 서울 제동의 최 인길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관검을 시켜 주신부를 전주로 초청하였다. 이때 관검과 동행하여 상경한 사람은 이 존창이었다. 그는 충청도의 사도로서 신해박해 때 일시 배교하였다가 통회하고 홍산으로 이사하였었다. 그런데 주신부의 입국 소식을 듣고 신부를 은익할 장소로 저구리(완주군 운주면)에 이사하였다. 여기에는 윤 지충의 동생 지현이 살고 있었다.

1795년 4월 주신부는 관검과 함께 먼저 존창의 집으로 향하였다. 일행이 마침 윤 지충, 권 상연의 무덤 아래를 지나게 되자 관검은 주신부에게 “이는 우리나라 교도 중 가장 고명한 사람의 무덤이라”고 하였다. 주신부는 말하길 “훗날 이 땅에 천주교가 크게 행해지면 이 두 무덤은 마땅히 성당 안에 들게 되리라”고 하였다.

주신부는 존창의 집에서 수일을 머물다가 초남리 유향검의 집에 와서 6,7일을 유치(留置)하였다. 향검은 주신부와 친지한 교리 토론을 하였다.

주신부의 지하활동에 눈 감고 있을 사탄은 아니었다. 배교자 한 영익(韓永益)은 주신부의 거처와 신부를 입국시킨 자들을 정부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누설된 정보로 피신하고 주신부를 인도한 윤 유일과 최 인길, 지황 3인이 잡혀 순교하니 1795년 5월 12일이었다.

언제까지나 지하에서 살 수는 없었다. 원활한 선교활동과 신교의 자유를 얻는데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함을 절감하였다. 조선교우들 역시 신교의 자유와 신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절실하게 느꼈다. 주신부의 최상책은 외교적인 노선에 의해 조선정부를 회유하는 길이었다. 이러한 내용의 추진을 위한 편지를 북

경주교에게 전달했다. 편지의 문안 작성은 전라도 신도들에게 일임되었으나 유 관검은 서사(書辭)를 꾸미기 어려워 신부에게 전하니 주신부는 초본을 보냈다. 내용인 즉 “청컨대 서양의 큰 배를 보내어 한바탕 관결한 후에야 신부가 편안할 것이며 聖學(천주교)도 시행케 될것입니다. 대국(중국)은 옛부터 마태오·밋치라는 사람이 성교를 존중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학술(천주교)을 경애하는 자가 대부분 변변치 못하여 조정에 저명한 사람이 적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음니까. 만일 큰 배를 맞아오면 국금(國禁)이 반드시 풀려 우리의 道를 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서국(포르투갈) 임금이 원경(단원경) 등 물건을 보내어 책백을 후히 갖추어 꼭 우리나라에 국서를 보내되 “항상 귀국의 명성을 사모하나 성교가 없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독실한 성학자를 시켜 큰 배를 보내오니 꼭 성교를 매행케 하여 소망을 저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大船(큰배)는 서양인이 주류천하시에 반드시 큰 배를 타고 다니는 전교의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배가 무력 시위의 위협적인 전함으로 표현되었고 이것이 신유년 전라도 박해 때 반역부도죄의 기폭제가 되었다. 주신부의 입장은 포르투갈 출신인 북경주교 구베아에게 포르투갈 국왕에게 외교를 부탁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1795년 봄 주신부의 거처를 마련하는 자금으로 300량을 주었는데 그해 8월 주신부는 유 향검 형제에게 북경주교에게 서신을 전달할 밀사의 추천과 경비 400량을 부탁하면서 이 편지의 진정인들의 연대서명도 지시하였다. 유 향검은 조카 유 중태와 은전 400량을 마련하였고 밀사는 윤 지현의 추천으로 연산망 황실(黃汎, 信巨)으로 결정하고, 문서에는 유 향검, 관검, 윤 지현 등이 서명하였다.

이 편지 내용의 문제는 본래 포르투갈 국왕의 친선 외교가 중심이었는데 정부와 일부 신도들의 인식은 그들이 타고 올 위협적인 큰 배가 위주가 되었다.

구베아주교의 답서는

“큰 배를 보내 달라고 청한 것은 나의 소원이지만 뱃길이 수만리인치라 일이 거창하니 이것은 내가 행할 수 없는 일이며 지혜로운자는 망명되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포르투갈 국왕이 열심하지만 어찌 보낼리가 있겠는가, 다만 신부를 잘 보호하여 성교를 널리 펴는 것만이 크게 바라는 바요”라고 말했다.

조선교회는 초조한 가운데 불길한 구름만이 퍼져 두었다.

해외여행 업무개시
국제여행사 개설

전 일 관 광

전 화 ⑥ 6 6 6 6 ~ 8
대한항공 국내외 대리점
설악산·제주도·전국명승지
성지순례(국 내외)안내

전주 노라노 양재,
미용, 한복 학원

미용 시험일자 9월 18일
2차 11월 6일

미용, 양재, 한복, 재봉과
수시 모집, 개인지도, 가
정양재반, 기숙사 완비,
통학권 발급
전주시 교사동 1가 429
전북 적십자사앞 5층건물
김 베드로·김 안나

□ 해외여행 및 성지순례 안내

—형제들을 위해 성실한 봉사자로 사랑을 전파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내 쇼 날 항공

전북지구 주재원 이 은 자(엘리스넷)

전주시 서노송동 601(가톨릭센터 후문)

전화 ④ 2 5 0 2 · ⑤ 4 4 7 1

□ 순교 인물전 ⑤

동정부부 유 요한과 이 누갈다

한 사람을 성(姓)과 이름으로 나타내듯이 유 요한과 이 누갈다는 배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부이다. 천상배필은 천주께서 성스럽게 작지어 주신 혼인을 일컫는다. 더구나 사회의 관습과 욕망에서 이루어진 혼인이 아니라, 천주께 대한 사랑의 호기심과 성가정을 깊이 탐오려는 노력에서 이루어진 결혼, 그것은 온전히 은총 하나에 의지하여 성령의 힘으로 결합된 천상배필인 것이다. 이 두 부부는 작은 요셉과 마리아의 표양으로 되고자 오랜 기도와 약속 끝에 맺어진 결실이었다.

유 요한(重哲, 종선)은 1779년 호남의 토호(土豪)인 유 항검과 신희(申喜)를 부모로 하여 장자로 태어났다. 그는 호남의 사도인 아버지의 돈독한 신앙교육 밑에 솔직하고 성실한 신심과 굳은 신앙에 열렬한 애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기 본분에 충실하고 바른생활 자세와 세상 허영을 가볍게 여겼다.

그는 10세 무렵, 아버지의 깊은 교회를 목격했다. 초대교회 가성직단의 일원으로 사제직을 수행해 왔으나 어느날 교리서를 정독하며 연구하던 중 자기의 소행에 경악하였다. 그것은 동정을 지키지 못한자가 미사성체를 봉헌하고 신부 행세를 하는 것이 무서운 독성죄가 된다는 사실이었다.

장자인 그가 아버지 곁에서 가업을 전승(傳習) 받고 있는 터에 아버지가 피로와 하는 동정생활과 사제의 길 이 충격적이었다. 그 당시 사제의 길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동정생활에 대한 꿈은 최고의 이상(理想)으로 간직하게 되었다. 그가 17세 되던 해에 주 문모신부가 자기 집을 방문하였을 때 아버지와 나누는 교리 토론을 들으면서 그는 자신의 심중을 굳혔다. 하늘나라에 매한 타는 열애에서 동정생활에 밤바질 것을 다짐하였다.

이 누갈다(順伊, 유희)는 태종의 아들 경녕군의 14대 손이며 지봉 이 수광의 9대 손이고 성호 이 익의 외손녀이다. 그는 시선이 주목되는 가문에서 사상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빼어난 인성교육을 받았지만 신앙교육 또한 철저하였다.

그는 1782년 이·윤화와 권씨에게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아버지 윤하는 조선교회 창설이전 주어서 교리강학회의 일원이었고 교회설립 후 명례동 김 범우 집에서 가진 교회활동의 중요 인물이었다. 또한 어머니 권씨는 신앙의 보람으로 신앙에 사는 여인이었다. 더구나 외삼촌인 권 일신은 교주(敎主)로 지목될만큼 조선교회의 기둥이었다. 누갈다의 5남매 중 3남매가 장렬하게 순교한 사실은 모든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순교는 발작적인 만용도 우연한 사건도 아니다. 그의 외삼촌 권 일신의 막내 딸인 권 테라는 그의 남편 조 숙(배드로)과 함께 1819년 순교하기까지 동정부부로 살았다. 누갈다의 일생 환경은 누갈다를 위하여 좋은 것들을 마련한 천주의 창조와 같았다.

누갈다는 14세 때 주 문모신부에게 첫영성체를 하는 감격을 받았다. 그는 성체를 모시며 자기 몸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한 몸이 된 은총에 전율하였다. 그는 천주께 자헌하기 위하여 동정생활을 결심했다. 15세 때 아버지를 여의는 슬픔을 당했으나 천상에서 영원히 재회할 희망에 기쁜 위로를 가졌다. 어머니 역시 그의 성덕을 위해 뜨거운 기도의 정성을 바쳤다. 그러나 그는 피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 시대 풍습으로는 정상적인 여인에게 평생 동정생활이 허용되질 않았다. 그가 16세 되던 해에 주 신부에게 자기의 성소를 상담하였고 마침 기다리고나 있었듯이 누갈다와 같은 결심을 하고 있는 유 요한을 알선해 주었다.

그러나 친척들의 반대하는 소리는 격렬하였다. 왕족이요 지체 높은 양반이 일개 시골 향족(鄕族)에게 혼사가 웬말이냐는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튼튼한 보루가 되어 온갖 수모를 당하며 적극 추진하였다. 1797년 혼배를 하고 이듬해 9월 시택으로 와서 동정서원을 하였다. 이리하여 왕족과 평민이 만나 하늘나라 국민이 되므로 이 땅에서 신분은 극복한 최초의 혼사를 이루었다. 그가 치명하기까지 4년의 오누이생활은 살얼음을 걸듯, 백척간두에 서있듯, 긴장의 세월이었다.

유혹은 본능의 시련대인가, 아찔한 10년의 유혹을 땅에 빠져 전디기도하였다. 그것은 인간의지의 자량이 아니라 천주께 철저히 매달린 은혜였다. 천주께 향한 사랑이 본능을 성화시킨 것이다. 섭망과 같은 순간의 세상, 목전에 임박한 하늘나라를 준비하기에 존각이 소중했다. 신유년 3월 대은(大恩)의 기회가 집안에 닥쳤다.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체포되어 갔다. 그는 초조했다. 남편이 배교하여 치명대은을 잃을까, 걱정이 태산이었다. 9월 17일 시아버지 일행이 처형되기 이틀 전, 드디어 주님의 때가 그에게 왔다. 누갈다는 시어머니와 남은 가족과 체포되었다. 옥에서 살이 쪼겨 피가 흘러도 고통을 몰랐다.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은혜 중 은혜였다. 어느날 옥중의 요한에게서 평화의 편지가 왔다. “나는 누이를 격려하고 권고하고 위로하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요한은 10월 9일 치명하였다. 누갈다는 친정식구들과의 이별에 쏟아지는 눈물을 가누질 못하였다. 그렇게 산이에게 이별은 가장 큰 옥정의 박해였다. 12월 28일 남은 가족에게 격려와 위로를 하며 숲정사에서 치명대은의 영광을 받았다. “제가 만일 순교자가 된다면 그것은 비할데 없는 기적이 아니겠어요”한 그 기적을 실현한 것이다.

그날이 유 요한과 영원한 천상 신방을 꾸미는 날이었다.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여
 ☎ 262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또(덕배)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
금 보 장
 장(방저거)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정기 특설

기능직 여사원 모집 안내
 당사는 피혁제품 수출업체로써 기술을 익힐 수 있으며, 기숙사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모집인원 : 여자 〇〇명
 자 격 : 14세~20세 미만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차필이력서

전 주 산 업 사
 ☎ (72) 1810 정 루시아

부당 해고자를 위한 전국 기도회

일 시 : 7월 25일 오후 8시
 장 소 : 전주 중앙 성당
 주 최 : 천주교 전주교구

□ 한국 천주교 각 교구 평신도 대표자 모임

한국 천주교 평신도 협의회는 오는 7월 25일과 26일 전주교구에서 긴급 각 교구 평신도 대표자 모임을 갖기로 했다. 최근 전주교구 가톨릭 노동 청년회원의 거듭되는 부당 해고로 인해 노동의 권리마저 잃어가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전주교구 가톨릭 노동 청년회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이다. 이번 모임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빈다.

□ 여름 주일학교를 위한 영화 안내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동심에 티없이 순수한 신앙을 심어줄 감명 깊은 영화 「마르셀리노」의 기적을 상영해 드립니다. 성바오로 여자 수도회에서 빌려 이번 한 주간동안 각 본당 주일학교를 위해 특별히 홍보곡에서 마련해 보았습니다.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기 간 : 7월 25일-7월 31일 대여비 : 4만원(교통비 포함) 신청 : 교구청 홍보국

□ 제1회 전주교구 산간학교 개교

—7월 28일~31일, 내변산 중계에서
 —관심과 협조, 기도,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28일(목)부터 내변산 중계에서 산간학교가 문을 연다. 제일 어려운 문제인 기상조건은 장기에보로 보아 별로 걱정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본 교구에서 처음으로 함께 실시하는 산간학교인지라 모두들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아야 하겠다.

본당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참여하는 학생들과 함께 하는 자세를 보여주자. 산간학교 시작 전날인 27일(수)에는 본당단위의 파견식을 미사나 말씀의 전례 형식으로 갖는 것이 좋다. 그 취지 방법은 이미 공문으로, 또는 지도자들 교육시에 알려 주었다. 이 파견식에는 학부모들이 꼭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산간학교의 성공을 위하여 3일기도를 바치자. 25일(월)부터 3일간 목주의 기도와 200주년 기도문을 정성껏 바치며, 산간학교에 참여하는 천여명의 학생들과 정성적으로 하나 되자.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준비물 점검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먹는 것도 그렇지만, 야영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옷가지(긴소매의 옷 등)도 빠뜨려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중학생의 경우는 국민학교 교실에서 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야영을 희망하는 학생은 텐트를 준비해도 좋다.

지도자들은 본당에서 참여하는 학생 15~20명당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그외의 지도자로는 몇몇 교사들과 신학생들이 수고하게 된다. 이유는 수많은 학생들의 통제와, 흔히 본당단위의 수련회 때에 볼 수 있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함이다.

산간학교를 찾아 격려해 주시는 본당 사도회 임원들이나 학부모들은 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가져야 하겠다. 이유는 산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이다. 19개 본당에서 참여하는 천여명 학생들의 형제애 증진과 일치를 위해 온 교구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기도만이 이번 제1회 교구 산간학교 성공의 열쇠가 아닐 수 없다. (교육국)

요심이 (520) 김병오

어느 나라의
아들딸이
결혼한다고



산하기관에
버젓하게
알리고있으니



한심하도다
한심하도



사회정화는
서민들만
하는것입니까?



재즈 크라식



상당수준의 교직원(체르니, 쏘나타) 소화자에게 악보없을 시도 반주해 낼 수 있는 쉐미 크라식 반주법의 희소식

피아노 반주법

전화 ① 3770

이일규(알로이시오)

※ 구역전과 전교중간 사거리
전북은행 노동동지점 앞

- 혼수(회갑) 옷감
- 특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벤티지

도매상

서울주단

☎ ③0453 ⑤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국내 최초로 상판에 이어
 몸체가수도 KS마크 획득
한 일 씩 크
 전북 총대리점

• 주방설계 • 씩크대수리
 • 가스렌지 • 주방용기
 전주 중앙성당 정문 바로옆
 전화 ④0841 야간 ④9874
 박 안 당 (윤규)

두뇌개발·인성교육 관한 성문 주산 학원

- 유능한 강사진
- 독자적인 학습내용
- 산술능력 책임지도

☎ 72-0754
 서노송동 사무소 앞 2층
 박희지노(봉수), 이그레고리
 아(진숙), 박레아(영숙)

월명동 성당 버스 성지순례단위해 특별 봉사

기간 : 방학기간중 매일
 평상시 토·일
 ☎ ③ 8445 · ② 2041

